

RULE(Royal University of Law & Economy) Campus Manual

1. 위치



RULE 대학은 CCC오피스에서 좀 떨어져 있다. 오피스에서 뚝뚝이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해야 학교를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위성사진이다. 오른쪽의 그림이 RULE 대학교이다.

2. RULE 현지 상황

① 학교

- 학교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학교를 둘러보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 한국의 두 학교와 교류중이며, 그 중 하나가 한동대학교이다.
- 유일하게 학생회실만 에어컨이 있다.
- 학생식당은 정말 맛없다. 대부분의 음식이 짜다. 학교 밖 식당이 그나마 낫다.
- 캄보디아 교수님의 수업일 경우 일찍 끝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확히 맞춰서 수업이 끝난다.

② 학생들

- 학생들이 뚝뚝하다. 뚝 부러진 맛이 난다.
- 모든 학생들의 전공이 법 또는 경제 관련분야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전공으로 공부를 한다. 필자가 만난 한 학생은 RULE 대학에서 법학 전공이며, RUPP에선 IT 전공, 또 다른 학교에선 English가 전공이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나보다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경제 전공 공부와 함께 고등학교 선생님이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처럼 다중전공으로 바쁜 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다중전공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경제활동으로 바쁜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전부 바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FREETIME을 아주 여유롭게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다.
- 순수하다.
- 자신들이 바쁜지 알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다.
- 한류가 대세다. 그래서 더욱 한국인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 08년 겨울엔 풀하우스가 대세였다.

③ CCC

-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 씨름이 따로 없다. 대신 학생회실이 씨름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팀이 들어가기 전 keyman(순장)은 없었다. 다만, 부티간사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있었다.

- 08년 겨울단기선교를 통해 4명의 keyman을 낳고 왔으며, 3명 더 keyman으로 훈련받길 원했다.

3. 사역일정

① 기상 ~ 등교

- 05:30 ⇒ 기상
- 05:30 ~ 06:30 ⇒ 세면 및 세척
- 06:30 ~ 07:30 ⇒ 아침모임(QT)
- 07:30 ~ 08:30 ⇒ 아침식사
- 08:30 ~ 09:00 ⇒ 학교로 이동
- 09:00 ⇒ 학교도착

아침식사는 숙소가 아닌 Cambodia CCC센터에서 하게 된다. 숙소는 쏘반나푸미 게스트 하우스였다. 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정도이다.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학교로 이동할 땐 뚝뚝이를 타고 이동한다. 뚝뚝이란 오토바이와 마차의 결합된 운송수단으로 한국의 택시와 비슷하다. 뚝뚝이를 타고 학교로 이동할 때 길이 막히나 안 막히나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평균 25분 정도 걸린다. 학교로 들어갈 때는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security supervisor에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큐리티에게 걸리면 머리 아프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2,3명씩 짝지어 간격을 두어 학교 정문을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2명을 가장 추천한다. 화려한 복장으로 안전요원에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복장은 최대한 수수한 복장으로 갖춰 입어야 한다. 바지는 청바지가 가장 무난하며, 상의는 빨간색, 또는 화려한 프린팅복장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학교에 들어가면 우왕자왕하지 말고 마치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처럼 자연스럽게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이 낫다. 학생회에 연락이 되어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회실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② 등교 ~ 학교

- 09:00 ~ 12:00 ⇒ 1차전도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6:00(17:00) ⇒ 2차전도

학교가 그리 크지 않다. 첫날 오전 간사님과 8명의 순장 전부 전도하기 위해 학교를 둘러봤으나 학교가 좁은 관계로 다들 똑같은 자리에서 몇 번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RULE대학에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선 모든 순장이 한 번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나눠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무조건 사영리를 읽어주고 영접했다고 하여 전도한 것이 아니다. 영접한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순장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여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가 그의 독생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하여 그들을 헌신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것이 단기선교팀의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이며 더 나아가 순모임까지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좋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학교 내 학생식당과 학교 옆 식당이 있다. 학교 내 학생식당은 완전 비추한다. 우리 팀은 학생식당에 한 번 간 뒤 몇몇 사정이 있는 순장들 빼고 두 번 다시 학생식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식당에 조명이 없기에 낮에도 매우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음식이 매우 짜다. 한국인의 입맛에 잘 안 맞을 수 있다. 그나마 학교 밖 식당이 가장 낫다.

옆 사진은 바로 학생식당에서 학교 밖 식당을 가는 방법이다. 파란 길을 따라 가면 된다. 참고로 학생회실은 학교 정문에서 왼쪽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다. 식사를 할 땐 관계를 맺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같이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친구가 캄보디아의 음식문화를 소개해줌으로 더욱 더 깊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므로 아주 완전 많은 친구들이 아닌 이상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③ 하교 ~ 저녁식사

16:00(17:00) ~ 19:00 ⇒ 하교 및 저녁식사

하교시간은 팀에서 알맞게 정하면 된다. 하지만 숙소까지 돌아오는 시간은 매일 정해져 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올 때 저녁식사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알맞게 시간을 조정하여 하교할 수 있길 바란다. 하교 후 프놈펜을 조금 둘러보고 싶다면 16시에 하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전도를 더욱 더 하고 싶다면 17시에 하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초반엔 16시에 그리고 나중엔 17시에 하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저녁식사 역시 팀별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왕이면 동네식당에서 해결하기 보단 보다 나은 음식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우리팀은 쏘레아(백화점)의 푸트코트,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호텔음식점, 비싼 음식점 등에서 저녁을 해결하였다. 간혹 입맛이 맞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빵도 괜찮다. 그리고 이왕이면 팀끼리만 저녁을 같이하기보다 깊은 관계를 맺은 캄보디아 친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식사를 마쳤으면, 신속히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맺는 방법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에서 새친구들과 관계를 맺었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RULE대학의 학교 특성을 이용하여 절반이 전도하러 나가면 나머지 절반은 학생회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몇가지 현지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한국어강의

한류가 대세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어는 당연 관심사이다. 어설픈 한국어강의는 안하는 것이 좋다. 짜임새 있는 강의, 주제가 있는 강의로 확실히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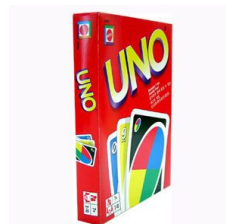
② 보드게임

캄보디아 친구들을 보드게임을 아주 좋아한다. 도박을 좋아하는 문화이기에 더욱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

- 루미큐브 : 아주 인기가 높다.



- 우노 :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였다.



- 윗놀이 :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윗놀이를 한국의 전통놀이라고 소개하면 매우 좋아한다. 한국적인 것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RULE대학을 맡게 된다면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좋을 것

이다. 장소는 학생회실에서 무한히 빌려주니 장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왕이면 윗놀이(작은 거-시끄럽지 않도록) 등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져가서 소개하는 것은 매우 괜찮은 방법이다.

③ 사진찍기 및 사진교류

캄보디아 친구들은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를 사귀면 서로 사진을 교류하는 것이 이들 사이의 문화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진을 많이 준비해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교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진을 같이 찍으면 찍을수록 친해지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러므로 사진기는 필수! 없다면 핸드폰이라도 이용해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외우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 이럴 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나중에 다시 만나기 전 미리 얼굴을 공부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④ 한국문화소개

한국의 날씨, 사계절, 위치,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 공부방법 등 다양한 한국적인 것은 그들의 관심사이다. 가기 전 미리미리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 친구는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주로 어디로 여행을 가냐? 라는 질문을 하여 필자를 당혹스럽게 한 적이 있다. 이처럼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니 한국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

⑤ 캄보디아 게임

캄보디아 친구들과 캄보디아 전통게임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했던 것은 "big fish, small fish"라는 게임이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에게 직접 배워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좋다.

⑥ 같이식사하기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 같이 식사하기이다. 음식값이 그리 비싸지 않다. 그러므로 친구들을 최대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 친구들도 반겨준다. 더욱 더 친해지면 저녁까지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좋다.

⑦ 숙소에서 함께자기

캄보디아는 저녁 7시가 되면 거의 다 집에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우리 숙소에서 잠자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도전에 불 만한 가치가 있다. 숙소에 초대하여 다함께 모여서 축복해 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잠자리에 든다면 아주 굉장히 친해진 것이다.

⑧ 같이 운동하기

캄보디아 학생회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함께 축구를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축구를 아주 잘 한다. 거의 프로급이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함께 운동을 하게 된다면 형제애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는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⑨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영어로 잘 준비해야 한다. 친구를 만날 때 마다 하는 것은 자기소개이다. 친구의 처음 마음 문이 열리는 코스가 바로 자기소개이다. 비전이나 자신의 꿈, 자신의 학과, 나이, 좋아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 한국에서 맡고 있는 일, 취미, 특기, 기타 등등이 모두 전도의 도구이다.

⑩ 지속적인 관심

한국에 돌아와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e-mail을 주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5. 세워진 keyman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통해 RULE대학에 4명의 keyman이 세워지게 되었다.

- ① 팔라 Phalla(형제) : 학생회 멤버로 부티간사님과 순모임을 했지만,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팔라가 keyman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② 니카 Nika(자매) : 유병현 순장을 좋아하는 자매로서 단기팀의 전도로 세워진 키맨이다. 자질이 뛰어나다.
- ③ 로타나 Rotana(형제) : 매우 수줍음이 많은 형제이다. 팔라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지만, 이번에 키맨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 ④ 뿐러 PonLok(형제) : 매우 자질이 크다. 큰 믿음의 소유자이다. 키맨으로 활동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다른 친구들과 남다르다. 키맨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들 4명의 친구와에 모니, 서른, 그리고 다른 많은 친구들이 키맨으로서의 자질이 드러났으며, 그들이 키맨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6. 재정

1\$는 4000리안이다.

수입 : $5\$ \times 9 = 45\$$

$6\$ \times 9 = 54\$$ (보통 하루 받는 재정, 일요일 제외)

+ 추가재정 100\$ + 간사님 재정 외 20\$

이동료 : 예약된 뚝뚝이(학교 등하교시) \Rightarrow 한 대당 $5\$ \times 2 = 10\$$

편도 이동(시장 갈 때 등) 2\$

쏘레아(시장)에서 숙소까지 뚝뚝이 한 대당 2~3\$ 더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면 일단 무조건 깎아라!

점심비 : 17~25\$ (친구 수에 따라 들쭉날쭉거림)

14명 정도 식사 17\$, 10~12명이 먹을 때 15\$정도 친구들 데려와서 최고로 먹을 때는 25\$

6일~23일 : 24.8\$, 24\$ 500리안, 20\$, 14\$, 16.6\$, 15.6\$, 17\$

간식비 : 주로 과일비 하루 평균 5\$

저녁비 : 일본식당 12명 28.5\$ (4순 + 현지간사님 + 새친구 2명 = 12명)

피자 24명 81.55\$ (4순 + 간사님, 가족 5명 + 새친구 40명 = 24명)

샌드위치 $1.2\$ \times 10 = 12\$$ (4순 + 현지간사님)

중국집 꽤 비쌌다. (4순 + 현지간사님)

기타비 : 복사비 1\$ (8장에 1\$)

간사님 선물 4\$ 2000리안 (백화점에서 가격 흥정 가능)

캠퍼스Security 줄 선물 포도주스 $1\$ \times 3$

운동장 사용비 (17\$ 500리안 + 뚝뚝이 10\$)

시골 갈 때 산 반찬 (고추장, 참치2캔) 5\$ (시골 갈 때는 필수!!!)

아이스크림 한 통당 3\$

7. 방과 후 활동

학교 후 가기 좋은 곳을 몇 군데 소개한다.

- ① 쏘레아 : 유일한 백화점, 가격 흥정 가능하다. 푸사트마이 근처에 있다. 또한 근처에 중국집이 있다.
- ② 푸사트마이 : 가장 큰 시장이다.
- ③ 메콩강 : 프놈펜에 흐르는 강이다. 근처를 뒤지다 보면 식용거미 파는 곳이 있다.

8. 기타

- ① 시골 갈 때 반찬은 필수로 구입해야 한다.
- ② 간혹 복사하러 갈 때, 과일 구입을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갈 때가 있다. 이 때 현지 학생들과 같이 움직이

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현재 학생들과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에도 안전하다.

- ③ 캠퍼스 사역을 마무리 할 때 쯤, 현지 간사님과 학교 Security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
가사님 선물은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 백화점이긴 하나 흥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security 선물은 주유소 편의점에서 구입해도 괜찮다. 편의점은 주유소에 위치한다.
또한, 학생회 선물역시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생회 선물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08년 겨울 단기팀 4순은 학생회에 루미큐브를 선물로 주고 왔다.
- ④ 저녁은 이왕이면 풍성히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왕이면 좋은 음식점으로 가는 것이 좋다.